

코로나 혈장치료제, 내달 환자에 직접 투여

GC녹십자 'GC5131A'
임상 1상 건너뛰고 2상 혹은 3상
완치자 혈장 공여, 임상에 도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환자에게 투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GC녹십자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임상 1상을 건너뛰고, 7월 인체에 직접 투여하는, 임상 2상 또는 3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임상 1상 시험 없이 임상 2상 또는 3상부터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긴급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바로 투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치자의 혈장 공여가 크게 늘어난 것도 혈장치료제 임상에 도움을 줬다. 지난 19일 오후 5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8000여명 중 169명이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공여하기로 했다.

GC녹십자는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소 100명이 넘는 완치자의 혈장이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의료계와 방역 당국에서도 120~130명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 등과 같은 면역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이다.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 직접 수혈 하듯 방식이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치료제다. 하지만, 완치자마다 혈장이 가진 바이러스를 실제로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능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해 목표치를 정하기 쉽지 않다. 특히 혈장 공여를 약속한 완치자들 중 채혈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GC녹십자는 관계자는 "169명 공여자가 모두 채혈을 한다고 봤을 때 일단 면역 단백질을 추출 분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 많은 양의 치료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혈장은 사실상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치료목적 사용을 통해 하반기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화 후 국내 환자들에게는 모두 무상공급 된다.

GC녹십자는 지난 5월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이나 전제 조건도 없으며, 금전적 손해를 입더라도 감내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정원 교수 이춘택 교수 김정선 교수

제9회 광동 암학술상 수여

광동제약은 성균관대 산부인과 이정원 교수, 서울의대 내과 이춘택 교수,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에게 '제9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해 국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중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의 세 부문으로 나눠 수여된다.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성균관대 산부인과 이정원 교수, 성균관대 신경외과 남도현 교수, 아주의대 생화학교실 이진구 교수가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은 서울의대 내과 이춘택 교수에 돌아갔다. 국립암센터 암역학연구과 김정선 교수는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 대한암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이 19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94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약산업 새로운 지평 열고 변화·혁신으로 새로운 역사”

유한양행 창립 94주년

“유일한 정신, 유한역사의 토대 도전·노력, 미래기반 다지는 길”

국내 대표 장수 제약기업 유한양행이 20일 창립 94주년을 맞는다.

유한양행은 19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9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정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다. 그리고 유일한 정신은 한 세기 가까운 유한 역사의 든든한 토대이자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유일한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신약 개발, 신규비즈니스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노력은 유한 100년 시대의 미래기반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 유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표창을 통해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에는 30년 근속 19명, 20년 근속 55명, 10년 근속 53명 등 모두 127명의 임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게 된다.

유한양행은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신념으로 유일한 박사가 1926년 설립한 기업으로 올해로 창립 94주년을 맞았다.

창업이래 신뢰와 정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다. 제약업계 1위 기업이자 우량장수기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기운의 사회환원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이세경 기자

국제학술지에 '우루사' 담석 예방효과 등재

대웅제약, 위암 환자에 효과 입증
SCI급 美 의사협회 학술지 게재

대웅제약의 간판 제품인 우루사의 임상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담석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JAMA Surgery'에 등재됐다고 19일 밝혔다. JAMA Surgery는 1920년부터 간행된 미국의사협회 공식 학술지다.

이번에 등재된 연구는 위 절제술을 받은 위암 환자에서 담석 예방 효과를 입증한 세계 최초 연구다. 대웅제약은 해당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루사 300mg의 '위 절제술을 시행

한 위암환자에서의 담석 예방'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연구진은 위 절제술을 받은 지 2주 이내의 위암 환자 521명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우루사 300mg, 600mg, 위약을 각각 투여했다. 12개월 동안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 약물 투여 12개월째 담석이 형성된 환자의 비율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우루사 300mg와 600mg 투여군 모두 위약군 대비 높은 담석 예방 효과를 보였다. 12개월 이내 담석이 형성된 환자의 비율이 각각 5.3%(8명/151명), 4.3%(7명/164명)로 위약군 16.7%(25명/150명)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이세경 기자

더위에 지친 펫팸족, 롯데몰로 모여라

김포공항점 '멍터파크' 운영

롯데몰 김포공항이 펫팸족(pet+family)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다.

롯데몰 김포공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야외광장에서 반려동물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펫 페스티벌 '멍터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속 폭염으로 지친 반려가족들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 '멍'과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의 합성어인 멍터파크는 풀장, 스토어 및 포토존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풀장에서는 보호자들이 반려동물들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스토어에는 약 30개의

셀러가 참여해 반려동물 간식, 의류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중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수영대회, 장기자랑 등 이벤트도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롯데몰 김포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이 덜한 야외공간에 행사를 마련했고 입장객 대상 발열을 체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몰 김포공항 김효종 점장은 “쇼핑부터 물놀이까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모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본격적인 폭염까지 더해진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위로로 전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힐라 이색 굿즈 한정수량 증정

'크리에이티브 드라이빙' 캠페인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힐라가 올 여름 브랜드 팬들을 위한 '썸머 굿즈'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힐라와 힐라 키즈 브랜드에서 각각 선과우더와 미니 선쿠션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해 구매 고객 대상 특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힐라의 썸머 굿즈는 유니크한 브랜드 굿즈 제작 등 이색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로 고객과 특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힐라의 '크리에이티브 드라이빙'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됐다. 힐라는 물론 패밀리 브랜드 힐라 키즈도 함께 참여했으며, 각각 코스메틱 브랜드 '유어브랜드' '엘로엘'과 손잡고 성인용과 키즈용 선블록을 제작했다.

먼저 힐라 '레디 투 롤 선과우더(SPF45/PA+++)'는 과우더제형 선블록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하고 피지 컨트롤 기능을 포함했다. 거울이 부착된 퍼프 일체형 용기로 휴대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비울 수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상쾌함 더한 '호가든 그린 그레이프' 출시

오리지널 벨기에 밀맥주 호가든이 여름을 맞아 청포도 맛을 더한 '호가든 그린 그레이프'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호가든 그린 그레이프'는 호가든이 지난 몇 년간 브랜드 고유의 혁신 정신과 전통적인 양조 기술을 통해 선보였

던 '호가든 유자', '호가든 레몬', '호가든 체리'에 이은 네 번째 기획 제품이다. 청포도밭의 느긋한 삶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린 그레이프'는 호가든 본연의 산뜻한 밀맥주 맛에 청포도의 상쾌한 달콤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롯데몰 김포공항 야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멍터파크